아름다운 광주, 풍성한 남도예술 담아

영화 '매화광주' 간담회… 김인식 감독 등 문화예술인 참석

예지원 "동양화 같은 풍경, 작업실 내준 예술가들 인상적"

영화배우 예지원은 기지회견장으로 들어서자 마자 '그림' 한점을 펼쳐들었다. 한국화가 박태후 선생이 그린 붉은 매화꽃이었다. 박태후와 예지원의 인연은 영화 '매화광주'에서 시작됐다. 영화에는 하얀 화선지에서 붉은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다.

15일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에서 영화 '매화광주'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매화광주'는 아리랑 TV가 만드는 '한국의 도시를 말하다' 시리즈 중 한편으로 광주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가 광주를 알리기 위해 아리랑 TV와 MOU를 체결, 진행해 온 사업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메가폰을 잡은 김인식 감독을 비롯해, 주연배우 예지원·최우제가 참여했다. 특히 영화에 직접 출연한 한국화가 박태후, 도예가 박유복, 행위예술가 다음 등 지역 문화예술인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광주 출신으로 프랑스영화학교에서 공부한 김 감독은 황정민 주연의 '로드무비'와 김혜수가 출연했던 '얼굴 없는 미녀'를 만들었다. 그가 영화에서 그리고자 하는 광주의 이미지는 어떤 걸까.

"지금까지 '꽃잎', '부활의 노래' 등 광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제작됐지만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강한 이미지들이었죠. 저는 광주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이미지, 부드러운 이미지를 영화에 담고 싶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보다 풍성한 '남도의 예술'이 기본에 깔린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 감독은 처음 감독 제의를 받고 광주에 헌팅 왔을 때 박태후씨 등 세 사람의 예술가를 소개받고 영화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영화에는 박씨 등이 작업하는 과정과 결과물들이 오롯이 담기며 세 사람은 배우로도 출연한다.

영화는 형제를 동시에 사랑했던 한 여자가 2015하계유니버시아드에 출전 예정인 아들을 데리고 20년 만에 광주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올드 미스 다이어리', '생활의 발견' 등에 출연했던 예지원은 비밀을 간직한 여주인공 장현재역을 맡았으며 '물고기자리' 등에서 얼굴을 보였던 최우제는 오랫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갑자기 나타난 후 예전에 있었던 사건의 정체를 캐나가는 남자 주인공 역을 맡았다.

지난 1일 공식 크랭크 인한 '매화광주'는 5·18 국립묘지, 무등산 드라이브길, 광주월드컵경기장,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 등 광주 전역에서 촬영중이다. 아쉽게도 당초 영화의 50% 가량을 촬영할 예정이었던 이장우 가옥은 현재 대대적인 보수작업 중이라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예지원은 '배우'가 아닌, 예술가들과 직접 작업한 과정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풀어놓았다.

"광주와 나주 등에서 영화 촬영을 하며 너무 행복했어요. 동양화같은 풍경이 인상적이었죠. 박태후 선생의 작업실인 죽설헌 등 예술가들이 소중한 장소를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연기할 수 있어 영화가 더욱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기고, 그 과정을 보면서 감정몰입을 하는 제 자신의 연기가 영화에 그대로 담겨서 정말 큰 보물을 얻어간다는 생각입니다."

예지원은 특히 "연기 인생이 18년 정도 되는데 함께 작업하신 예술인들을 보면서 장인정신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게 됐다"고 말했다.

'참새' 연작으로 유명한 박태후씨는 죽설헌에서, 도예가 박유복씨는 화순과 광주의 작업실에서 촬영했으며 행위예술가 다음은 100년이 넘은 고택에서 조선시대 때 천연밀랍으로 매화를 만드는 과정을 재현하고, 직접 바라춤을 선보였다.

박유복씨는 "영상이라는 생소한 매체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재미있었다"며 "예술인으로서 광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해준 점도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매화 광주'는 내년 상반기까지 후반작업을 마친 후 국내개봉할 예정이며 해외영화제에도 출품할 계획이다. 또 아리랑 TV 해외채널을 통해 188개국에 방영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5일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에서 열린 영화 '매화광주' 간담회 참석자들이 박태후 선생의 작품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행위예술가 다음, 배우 예지원·최우제, 김인식 감독, 박유복·박태후〈왼쪽부터〉씨. /연합뉴스

화선지 위 먹물 한점이 꽃도 되고 나무도 되고

23일까지 '정묵회'전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심재환 작 '내고향'

문인화 그룹 '정묵회'(회장 심재환)가 오는 2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단체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심재환·고광·김광남·김두희·김명국·김수복·김영숙·김정자·노효진·박경남·박양수·박인수·박종삼·설인수·송민·심재순·오유진·이계순·이동선·이재호·정육재·황인관씨 등이 참여한다.

정육재씨는 흐드러지게 핀 홍매화가 바람에 날리는 환상적인 풍경을 화폭에 담아냈고, 정해은씨는 노란 국화의 단아한 모습을 형상화했다.

또 오유진씨는 진한 먹색으로 잎을 표현하고, 박양수씨는 풀숲을 배경으로 날개를 활짝 편 독수리의 역동적인 모습을 포착했다.

문의 062-222-375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만나다

조현영 피아노독주회 내일 금호아트홀

조현영 피아노독주회가 1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독주회의 테마는 'The greatest 3B'다.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바흐의 '이탈리아 양식에 의한 협주곡', 베토벤의 '소나타 30번 E장조 작품 109', 브람스의 '두 개의 랩소디'와 '피아노소품집 작품 118'을 만날 수 있다.

전남대 예술대학을 거쳐 독일 쾰른음대 석사과정,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박사과정, 마스트리트 국립음대 최고전문연주자과정을 마친 조씨는 현재 전남대·조선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한국·벨기에 수교 110주년 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회에 참여했으며 광주피아노아카데미, 피아노모 회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10-66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토토·투투 쌍둥이할머니의 환경이야기

극단 토박이, 20일까지 민들레 소극장

극단 토박이가 가족환경극 '토토·투투 할머니의 이야기 극장'을 무대에 올린다. 20일까지 평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3시·5시, 일요일 오후 3시 광주 예술의 거리 민들레 소극장.

지난 2009년 광주 지역 초등학교 순회 공연을 진행한 작품으로 조금 딱딱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탈과 인형을 활용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쌍둥이 토토·투투 할머니는 60년 동안 이야기를 만들고 공연해온 이야기꾼. 언니인 토토 할머니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눈나라 이야기'라는 공연을 준비한다. '눈나라 이야기'는 눈의 여왕과 함께 행복하게 살던 눈나라에 검댕 그으름씨오투가 쳐들어오고, 꼬마 눈사람 꽁꽁이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눈의 여왕을 구해낸다.

단원들이 공동 창작했으며 박정운씨가 연출을 맡았다. 티켓 가격 성인 1만원, 어린이 8000원. 문의 062-222-62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구려 문화여행

26~27일 충주-단양 문화탐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문병란)과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는 고구려 문화와 유적을 만나는 '충북 충주-단양 문화탐방'을 26~27일 1박 2일 동안 진행한다.

이번 탐방에서는 충주의 중원고구려비, 탑평리 칠층석탑, 박물관, 누암리고분군, 탄금대와 단양 지역의 온달관광지, 온달산성, 온달동굴, 드라마 세트장, 신라단양적성비(국보 198호) 등을 둘러보게 된다.

이번 문화탐방은 전문 문화해설사가 동행, 삼국시대 중원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대립하면서도 민족의 일체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공존의 문화를 알려준다.

마감은 오는 23일까지며 참가비는 성인 5만원, 청소년 4만원이다. 참가비에는 숙박과 식사, 여행자보험, 입장료 등이 포함돼 있으며 자료집도 제공한다. 문의 062-234-272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